

# 청취자 마음 활짝 열어 드릴게요



## 불교방송 '뮤직펀치' 진행자 불자 개그맨 문세윤

불교방송 '뮤직펀치' (매일 오후 12:15)를 진행한지 한 달된 불자 개그맨 문세윤. 7월 24일 첫 방송이 나간 이래 매일매일이 긴장과 즐거움의 연속이다.

"고정 패널 역할 외에 자신의 이름을 단 프로그램은 처음"이라는 문세윤은 DJ를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으로 꼽는다. "DJ는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매력적인 일인만큼 첫 DJ를 맡은 '뮤직펀치'를 좀더 재미있게 끌어가고 싶다"는 것이 그의 욕심이다. 열심히 배우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서 일까. 월요 초대석, 수요일 코너 등 모든 코너가 매력적이다. 아직 '초짜'여서 음악을 잘못 소개하거나 생방송의 시간을 잘 못맞추는 실수도 하지만 이것도 생방송의 묘미라 생각한다.

이것이 아니면 못살겠다 할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 개그는 문세윤의 삶의 기둥이다. 문세윤이 개그맨이 된 것은 성대모사에서 비롯됐다.

"고등학교 시절 방송사의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에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려고 장난삼아 참가했는데 상을 받았어요. 성대모사로. 방송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KBS 개그콘서트에서 한 번 나오라고 연락왔는데 사실 안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개그맨 권진영씨가 학교 선배라서 나오라고 하는 바람에 개그콘서트에 합류했죠."

- “DJ, 해보고 싶었던 직업”
- 수요 라이브 코너 등 매력
- 코믹 연기로 영화 데뷔도
- “불교 믿으니 마음 편안해져”

개그콘서트에서 단역으로 기본기를 다진 그는 SBS 웃찾사 원년멤버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출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도 웃찾사가 처음이었다.

최근 영화도 찍었다. 8월 말 개봉할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에서 주인공에게 씨름을 가르쳐주는 씨름부 선배 역을 맡아 코믹하면서도 잔잔한 연기를

선보이며 영화에 데뷔한 것. "‘천하장사 마돈나’는 가진 거라고는 힘밖에 없는 소년 장사 동구의 성장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가 되고 싶은 동구가 씨름부에 들어가서 갖가지 에피소드 겪으면서 성장하는 내용이죠. 캐릭터들의 특색이 잘 살아있고 감동과 재미를 잘 섞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연기 호흡이 느린 영화와 호흡이 빠른 개그 사이에서도 문세윤은 자신이 연기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개그맨 문세윤에게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열도록 기다리는 종교"이다. 항상 힘들 때 가서 쉴 수 있는 그늘을 지닌 큰 소나무처럼 말이다.

식구들도 모두 불자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 항상 절에 가서 기도한다. 그래서일까. "불교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다"는 문세윤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바쁜 스케줄 때문에 절에 직접 가지 못해도 마음 담은 불교와 함께 있다"고 고백했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참선 자주 하니 농구 잘 돼요”

### 美 대표팀 세인 배티어 선수 봉은사 방문, 스님과 차담

비타 500 월드바스켓볼챌린지(WBC) 2006 대회에 참가 중인 미국대표팀의 세인 배티어(28·휴스턴) 선수가 바쁜 일정 속 8월 13일 서울 봉은사를 찾았다.

리투아니아와의 경기가 열리기 직전 봉은사를 찾아 교육국장 선업 스님을 만난 배티어 선수는 경내를 차분히 둘러보고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불교와의 인연을 털어놓았다.

선업 스님에 따르면 절이 너무 좋다는 배티어 선수는 참선은 자신의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좋아서 참선을 많이 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 “운동선수에 평정심 절실”



미국 프로농구 NBA 공식 홈페이지(nba.com)에 실린 선업 스님과 배티어의 차담 사진.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봉은사를 찾아 참선을 배우고 싶다는 배티어 선수는 이미 지난 2000년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불교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선(禪) 사상'은 농구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며 "농구와 학업 모두 강한 의지와 평정심을 지녀야 한다는 것과 너무 과하거나 모자라서는 안 되는 중도를 걸어야 한다는 공명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의 사상"이라고 밝히는 등 불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왔다.

영화를 좋아하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세인'을 본따 이름이 세인이 됐다는 배티어 선수는 어머니도 역시 불교에 관심이 많다는 말도 전했다.

배티어 선수가 특별히 봉은사를 찾은 이유는 숙소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절이 보였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배티어 선수에게 참선은 최고의 마음 평정법이었던 것. 배티어 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무작정 봉은사로 발길을 옮겼다. 봉은사를 방문하고 싶어한 동료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못한 것을 아쉬워 했다는 후문이다.

강지연 기자

## ‘아시아 남아’ 유덕화

###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



올해로 11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네 번째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주인공에 홍콩 배우 겸 제작자 유덕화가 선정됐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유덕화는 1980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래, 90년대 홍콩 영화의 황금기에 ‘지존무상’ ‘열혈남아’ 등에 출연하며 여명 장학우 꺾부성과 함께 사대천왕으로 불렸다. 배우 뿐 아니라 가수로서도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유덕화는 2000년 ‘암전’으로 홍콩 금장상 남우주연상 수상 이후, 2004년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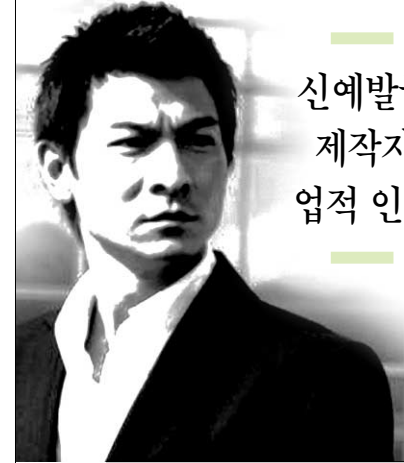
간도’로 홍콩금장상과 대만금장상 남우주연상을 동시 석권하며 배우로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2006년 홍콩금장상에서는 남우인기상을 받아 20년간 지속돼 온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부산영화제측은 “지난 20여년간 홍콩의 톱스타 자리를 지켜오면서 범 아시아권 스타로 활동해 온 유덕화가 최근 아시아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키우는 제작자로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에 주목했다”며 “범 아시아권 스타에서, 이제는 범 아시아권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작자로서 새로운 영화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유덕화의 업적을 인정해 그에게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여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 영화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은 2003년 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신설됐다. 첫 해 이란의 거장감독 ‘모흐센 마흐말바프’에 이어 2회 대만의 ‘허우 사오시엔’ 감독, 지난해에는 일본 ‘NHK 방송사’가 1995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아시아인 필름 페스티벌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

강지연 기자

### 신예발굴 제작자 업적 인정



### 연꽃 화가 김나현 초대전

금분을 사용해 고려불화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연꽃 그림이 8월 26일까지 서울 경운동 장은선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을 만난다.

연꽃의 화가라 불리는 김나현씨는 장지에 분채를 곱게 깔아 은은하게 여러겹 겹쳐 채색하는 채색화의 전통기법을 활용해 연꽃의 단아하고도 우아함을 표현해 냈다. 작품 속 연꽃은 모두 백련. 백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김나현씨는 “흰색이 화사하면 서도 우아한 자태로 드러나지 않고 모두에

게 평안한 감정을 전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02)730-3533

강지연 기자



큰 연꽃이 작은 연꽃을 감싸는 형태로 표현된 김나현씨의 채색화 ‘연꽃’.

BBS 불교방송

하루가 열리는 상쾌한 아침!

진리의 말씀이 있어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경전공부>

고불총림 백양사 강원 강주 법광스님의  
원각경 강의로 함께 합니다.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